2013 Spring

박물관풍경 風景

사무라이 투구 같은 체육관

일본 무사의 투구(가부토 かぶと)처럼 생긴 선인체육관(설립자 백선엽, 백인엽 형제 – 친일인명사전에 등록)이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어 철거 공사에 돌입, 오는 8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973년 9월 완공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체육관이라는 명성으로 속칭 '맘모스' 체육관으로 불렸던 선인체육관이 건립 40년 만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강좌프리뷰

인천 화교 이야기

130년 동안 우리 곁에 함께 살아온 이웃 華僑

국립민속박물관 강경표

차이나타운, 화교와의 첫 만남

필자는 국립민속박물관 도시민속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차이나타운에 거처를 마련하고 화교민들과 살을 맞대며 생활을 했다. 신포동의 한 부동산을 통해 북성동에 월셋방을 마련하고 세탁기, 냉장고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차이나타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차이나타운의 첫 느낌은 낯선 재미가 있었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패루와 붉은 간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중국어, 아기자기한 각종 소품 등은 작은 중국에 들어온 것 같은 묘하고 낯선 재미를 주었다. 조사초기에는 화교민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다. 여전히 마음 한 켠에 남아 있는 반한감정 때문인지 우리 조사팀을 반기지 않았으며,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을의 각종 행사에도 빈번하게 얼굴을 보이고, 집안의 대소사에도 참여하며 마음을 나누기 위해 진심을 보인 결과 서서히 우리 팀을 이웃으로서 받아들여주기 시작하였다. 화교 형님, 누님이 생겼으며 삼촌, 아저씨, 친구가 생겨났다.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 함께 살아가며 '화교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쌓여가는 정과 신뢰가 깊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쌓여가는 이야기의 깊이와 범위 또한 넓어졌다.

본적은 중국, 국적은 대만, 주소는 인천인 사람들

1882년 임오군란 때에, 조선정부의 참전 요청에 의해 이홍장(李鴻章)의 군대가 인천에 주둔하였는데, 이때 함께 따라온 군상(軍商) 40명을 한국의 첫 화교라 이야기한다. 이후 꾸준히 화교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산둥성 출신이었으며 채소농사, 이발사, 재단사, 요리사 등을 생업으로 삼으며 살아왔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같은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 내 유일한 소수민족인 셈이다.

이들은 한국인들로부터 '짱깨', '짱꼴라'라는 말을 듣는 등 민족적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또한 한국정부의 화교정책(주변국과의 관계에 따른)에 따라 업다운을 겪었다. 산둥성이 고향이고 본적이나, 한국전쟁 이후 한중관계 악화로 본적지를 버리고 대만의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는 곳, 주소는 인천이다. 1950년대에는 창고봉쇄 조치로 무역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으며, 1997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점포와 농토를 소유할 수 없었다. 반면에 최근에는 이른바 '다문화 특구' 조성 사업 등으로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이웃 화교 이야기

차이나타운에서 생활을 하며 만난 화교들의 삶은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소유금지, 취업의 제한 등 한국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각자의 진로가 엇비슷한 것이다. 대만, 중국, 일본 등으로 가서 식당일, 보따리상, 창업 등을 하고 여행가이드를 한다. 또한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가기도 하며, 외국에 나가 돈을 벌어서 고향인 인천을 찾아 창업을 하기도 한다.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살아가면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차별과 맞서 본인들끼리만 공고히 뭉친다면 후대도 똑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자성(自省) 하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차이나타운을 이른바 '화교를 이해하는 소통의 창구'로 만들고자 자비를 들여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현재 차이나타운 짜장면 거리에서 소품무역업을 하고 있는 원소흠(原所欽 1959년생)씨 역시 이와 비슷한 삶의 궤적으로 살아왔다.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학교갈 때, 한국 아이들이 "짱깨, 짱꼴라" 라고 놀리니까 싸움도 많이 했어요. 기분이 많이 나빴죠. 아버지가 식당을 하셨는데, 학교 갔다가 오면은 배달을 하잖아요. 가면 또 아저씨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다 싫었어요. 참, 어린시절이 그랬어요."

대만, 일본, 중국으로의 취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기회가 생겨서 바로 대만으로 갔어요. 홀대하던 한국이 싫었던 마음이 많이 있었죠. 대만에서는 꽃도 팔고 김치도 팔았어요. 김치 만들 줄 몰랐지만 그냥 생각나는 데로 해서 파는 거에요. 이게 한국 김치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에요. 하하"

"다음에는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는 클럽,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다시 대만으로 가서 1983년에 제가 스물 다섯 살 때, 가이드를 시작한 거에요.

그러다가 중국에 애완견 판매하는 일도 했다가 1994년에 동대문에서 티셔츠 가져다가 중국 위해에다가 팔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특색이 있는 명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차이나타운이 더 오랫동안 번영되기를 원해요. 당장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십년 후까지를 생각하자는 거에요. 우리 화교들이 스스로 멀리 보고 특색이 있는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리 예술제 같은 것도 그 일환이에요. 그렇게 해서 명소가 되고 우리 화교가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고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고향이고 집인데...

"그래, 우리 세대는 정서적으로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사는데 이방인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손자들은 진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잘 하자는 거지요. 그래도 좀 이뤄놓은 우리가 희생하면서라도 길을 닦아 놓자는 거에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거리 예술제 같은 것도 자비로 시작하신 거라면서요. "

"그렇죠. 일단 우리를 좀 알려야 하잖아요. 지금 차이나타운에는 짜장면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부터 좀 어색하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섞이려고 애쓰고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어요? 나는 결국에는 우리 화교가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고향이고 집인데..."

인천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며 화교민들과 뒤엉켜 살고 나서 책을 만들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찾아가서 만나곤 한다. 고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있고, 미혼이던 친구는 어느덧 장가를 갔으며, 아쉽게도 고인이 되신 분도 있다. 우리 이웃 화교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던 중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화교를 주제로 한 강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부디 130년 동안 우리 곁에 함께 살아온 이웃, 화교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길 바란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2013년 박물관대학 봄학기 '화교 디아스포라'를 5월 3일~6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Contents

02 **강좌프리뷰** 인천 화교 이야기

04 **전시리뷰** 李慶成, 그 사람

06 **탐방기** 일본 박물관 탐방기

08 **조사연구**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09 **인천, 도시탐사** 도원동 2

10 **청소년기획** 인천도호부청사

11 **박물관 소식**

12 **소장유물** 학익 고인돌

4Page Cartoon

야미yami의 생활 속 미술사

전시교육과 조유미

전시리뷰

석남 타계 3주기 추모전

「李慶成, 그 사람」

전시교육과 신은영

지난 2009년 11월 27일,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내신 이경성 선생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향년 91세. 우리 박물관에서는 석남 타계 3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전 「李慶成, 그 사람」(2012. 11. 27 – 2013. 1. 27)을 마련하였다. 생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박물관에 기증하셨던 유품 및 유작, 이번 전시를 위해 귀중한 자료를 선선히 내주신 몇몇 기관, 단체, 개인 소장품 140여 점이 전시에 올랐다.

이경성은 평생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 관장을 역임했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냈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이번 전시는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으로서의 업적과 재직시 첫 전시의 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경성이 어떤 관점에서 인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관심의 결과물인 1946년의 전시 구성은 어떠했는지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했다. 1부와 2부는 이경성의 생애사와 내면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배치하여 그의 생애 및 개성을 보여주고자 했고, 3부와 4부에서는 이경성과 인천의 관계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3년, 석남 이경성 추모전 전시장

1부. 그 사람, 美의 유목민

1부 「그 사람, 美의 유목민」에서는 이경성의 생애를 연표로 정리하는 한편, 그가 말년에 주로 거처하던 공간인 '석남서실(石南書室)'을 재현하였다.
먼저 그의 생애를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리듬으로 나누어 중요한 직위와 사건, 저서와 업적 등을 나타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상과 현실, 상실과 충족의 되풀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 연보에 이러한 이상과 현실이라는 삶의 주조음을 배경으로 놓았다. 석남서실은 그가 거처하던 공간으로, 주로 그가 쓰던 물건으로 구성하여 전시에서 놓치기 쉬운 개인 감성의 구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부. 그 사람, 그리움의 궤적

2부는 이경성이 그린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그의 작품 소재는 모두 다 '사람'이었는데, "미워도 고와도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사람만을 그렸다"고 한 대목에서 그의 내면의 고독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경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가 흔히 '인간적이다'는 말로 표현하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의 다정다감함에는 일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다정다감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뿜는 사람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동반하는 그런 다정다감함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과의 충만한 합일을 위해 '사람'을 그린다. 그가 사람을 그리는 행위는 그리운 대상과의 충만한 결합을 기원하는 주술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 그림 저편에는 어둠 속에서 현전(現前)을 갈망하는 주체, 즉 이경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우리는 이경성의 「사람」 연작을, 그것을 그리고 있는 이경성과 같이 놓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2부 「그 사람, 그리움의 궤적」에서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3부. 그 사람, 인천에 이르는 두 갈래 길

3부 「그 사람, 인천에 이르는 두 갈래 길」에서는 이경성이 어떤 길을 따라 인천에 접근했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경성은 근대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문호로서의 인천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경성에게 인천은 한국적 미를 발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한국적 미를 발견하는 데에는, 평소 존경을 표시해 마지 않았던 고유섭과("존경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한국미 그 자체를 지니고 다니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고 평한 최순우와의 관계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경성에게 인천은 근대의 관문이자, 고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오래된 장소였다. 이 근대와 고적이라는 격차 속에서 이경성의 미술사가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 의식은 시차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 시차를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경성에게 한국미술사의 서술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적에서 시작하면 근대에 이르는 길이 단절되어 있고, 근대에서부터 시작하면 고적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 둘 사이에 '식민지'와 '이식된 근대'라는 현실이 장벽처럼 버티고 서 있다. 식민지에서 멀어진 지금에는 그 장벽이 넘나들 수 있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장벽이었다. 그가 말했던 동양적 후진, 서구적 근대,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적 서술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었다.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창을 내다보면서

4부. 그 사람, 관장 이경성

4부에서는 이경성이 주재한 첫 전시가 그의 한국미술사의 재현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한계가 전시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해방 직후 역사적 지평을 보여준다는 점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의 특징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여러 시대, 여러 계열의 유물들이 혼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유물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혼종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비의도적인 혼종적 상황이 갓 해방된 국가적 상황을 표상해주는 것, 즉 해방 직후의 맥락과 지평의 혼종을 말해주는 기억의 장소로서 보고 싶었다.

사람, 이경성, 현대, 종이에 먹 펜, 25×30.4cm

사람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에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할 수 없다. 특히 이경성과 같이 크고 넓은 사람은 더욱 그렇다. 우리 박물관의 이번 전시는 이경성과 인천의 관계라는 지점을 통해서 그의 삶과 개성을 들여다본 데 불과하고,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는 이경성의 삶과 개성을 이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이것이 이경성의 "애정 관계는 너와 나 일대일의 관계"라는 말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

4Page Cartoon

야미yami의 생활 속 미술사

전시교육과 조유미

탐방기

2012년도 박물관·미술관 상호교류사업에 따른 일본 박물관 탐방기

–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교육과 김래영

일본 문화청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2012년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 동안 일본 규슈(九州)와 간사이(關西) 지역에 있는 9개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전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중 국립박물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한 박물관 위주로 조사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규슈국립박물관의 아지파 (あじっぱ)

1. 지역교육청과의 연계가 돋보인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北九州市立自然史·歴史博物館)

지난 2008년부터 우리 박물관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 지원사업, 가정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학교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과 박물관 교사들이 학교로 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지원 사업 등으로 세분화해 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MT(Museum Teacher)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MT 제도란 일정기간 현직 교사가 박물관에 파견되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을 돕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박물관과 지역교육청과의 연계가 일반적인 업무교류를 넘어 인적교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른 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보다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슈국립박물관 조사 모습

2.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미흡한 교토·나라 국립박물관 (京都国立博物館·奈良国立博物館)

교토와 나라국립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기대와 달리 활발하게 운영되는 편이 아니었다. 교토국립박물관은 1년 전 교육보급과가 신설되어 이제 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였으며, 나라국립박물관은 별도의 교육 전문인력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나라와 교토라는 고도(古都)에 설립된 까닭에 교육보다는 전시 중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도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교토박물관의 경우 미술사 전공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초·중등학교에 파견되어 박물관 유물에 대해 교육하는 문화재소믈리에방문수업(文化財ソムリエによる中學校訪問授業)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라박물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업무가 유물해설뿐만 아니라 전시 자료조사와 교육 개발 등 역할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문화교류 학습에 집중하는 규슈국립박물관(九州国立博物館)

일본 문화 속 동아시아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규슈국립박물관은 해외 여러 나라와의 다양한 교류사업과 독창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그 중 큐팍크(きゅうぱっく)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각 트렁크에 조몬(繩文)문화, 견당사(遣唐使)체험, 아지파 한국 등 전시내용과 연계된 13개 주제의 체험교구를 담고, 규슈 내 초·중등학교, 역사관, 문화교류센터 등에 대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박물관과 교류를 맺고 있는 8~9개 국가의 생활문화를 어른과 아이 모두 체험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 아지파(あじっぱ)도 규슈국립박물관만의 특징이었다. 내부에서는 전통의상, 놀이, 악기, 체험키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가족음악회, 아지파 축제, 아지파 갤러리 등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다.

4. 그 밖의 박물관

후쿠오카시립미술관(福岡市立美術館)은 갤러리 투어(ギャラリーツアー)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전시 설명 프로그램이 연령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해마다 여름방학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하카타(博多) 지역의 환경오염과 정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기타큐슈환경뮤지엄(北九州市立環境ミュージアム)은 소규모의 박물관인데도 주제를 특성화시켜 보고, 만지고, 듣고,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일본의 박물관 교육환경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상당했지만, 차이점도 많았다. 특히 지방교육청과의 연계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다. 한국의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박물관의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과 안내 홍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와 박물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 연계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속에서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MT제도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박물관 안내와 전시설명 등 특정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들이 학예업무 전반을 서포터하고 교육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박물관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한국에서는 국립박물관에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전파시키는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리도 가깝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박물관의 지원정책은 해당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박물관은 예산지원이나 운영체계면에서 비슷한 면도 많이 있었고, 기대한 것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 박물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은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면 박물관 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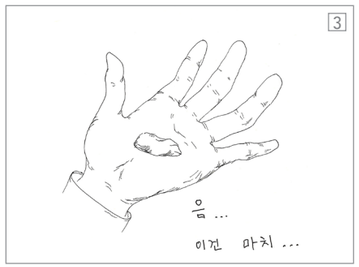
환경뮤지엄의 광고전단지 활용 나비 제작 체험

후쿠오카시립미술관 조사 모습

4Page Cartoon

야미yami의 생활 속 미술사

전시교육과 조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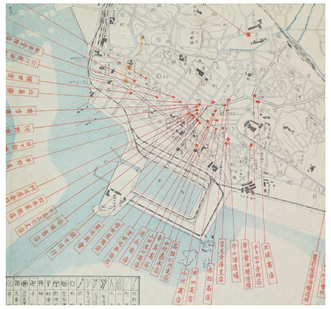
조사연구 /////

2012 학술조사 보고서

『인천 근 • 현대 도시유적』 발간

유물관리과 이현아

송월동1가 21번지 일대 한옥



1935년, 인천상공안내

답동성당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해마다 관내 주요 유적지에 대해 고고, 역사, 민속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강화도라는 특수한 지역을 통사적으로 접근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연차적으로 조사해 왔다. 강화산성, 강화 마장, 강화 절터, 고려시대의 강화 등 2003년 이래로 실시된 강화도 관련 조사는 2011년 강화의 국방유적 조사를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적에 대한 소기의 조사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 학술조사는 기존의 조사 분야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도시 개발 사업으로 도시 변화와 관련된 중요 근·현대 유적의 훼손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는 도시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정리에 대한 필요성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개항기부터 60년대까지 인천의 주요 도시유적의 현황과 변화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인천의 도시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인천의 근·현대 유적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진 이번 학술조사의 조사 대상은 모두 531개소이다. 현존하는 유적뿐 아니라 멸실된 주요 유적까지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구도심지인 중구와 동구는 기존의 조사 성과 이외에도 직접 현장에 나가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발견한 조사 대상지도 포함되었다. 기존의 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수의 건축물들도 넣었다.

이러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에는 시기별, 종별 조사 대상의 분포도와 함께 개별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표에는 지적원도, (구)건축물대장 등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자료들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인천의 근·현대기 지도와 상공관련 서적, 전화번호부, 엽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수합된 정보들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화도진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8년 발간된 〈인천안내도(仁川案內圖)〉는 중구 일대 주요 건물의 분포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어 조사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2년 실시된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학술조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인천 도시유적의 흔적이 조사보고서로 기록되었다.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인천시민들에게도 인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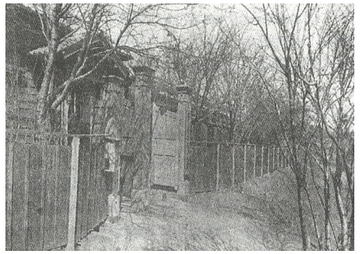
인천, 도시탐사 /////

도원동 2

복사꽃 언덕에 들어선 덕생원(德生院)

전시교육과장 배성수

덕생원(1932년 인천조감도)



인천부립 덕생원

답동 피병원(1918년 인천지형도)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변모해가던 인천이었지만, 도시의 위생상태는 전근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염된 수질과 청결하지 못한 거리에 병을 치료할 만한 의료진이나 병원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특히 전염병이 돌면 환자들을 격리·치료하는 시설이 없어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에 1894년 일본 거류민단에서는 일본영사관 인근에 전염병 환자만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였지만,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못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98년, 당시만 해도 외곽이었던 답동의 공동묘지 인근으로 이전한 뒤 1903년에는 환자 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의료장비, 의료진을 갖추고 피병원(避病院)이라 이름 붙였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병원이 위치한 답동일대가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혐오시설이 위치하기에는 곤란한 번화가로 변해버렸고, 늘어나는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협소하였기에 보다 많은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21년 3월 새롭게 편제된 인천부의 외곽에 있던 이곳 모모야마[桃山] 기슭 일본군 병참사령부 수비대 터로 시설을 확충·이전하면서 '덕생원'이라 하였다. 대지 2,719평, 건평 404평의 규모에 26개실의 병실을 두고 최대 9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던 덕생원은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인천의 전염병을 관리했던 주요 시설이었지만, 6.25전쟁으로 건물이 파괴되면서 그 기능을 잃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무엇보다 전염병 관리를 담당했던 덕생원의 복구가 시급했던 인천시에서는 1955년 주안동 산 5번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미군의 원조로 새로운 건물을 착공하여 1956년 10월 12일 '제인원(濟仁院)'이라는 새 이름의 시설을 개원하였다. 그리고 덕생원이 있던 자리에는 후에 보합고등공민학교가 들어섰는데 이 학교는 1968년 중앙여자중학교로, 1974년에는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항장의 외곽에 위치하였기에 일본인의 복사꽃 언덕으로 조성되었던 이곳이 일제강점기에는 도심의 외곽이라는 이유로 전염병 환자 수용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도심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입장에서 혐오시설을 외곽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외곽이었던 이곳은 결국 조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조선 사람들이 혐오시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도 역시 서글픈 시대의 아픔이었다.

4Page Cartoon

야미yami의 생활 속 미술사

전시교육과 조유미

Fin

청소년기획 1기 청소년기자 문은희, 이고은, 이수빈(이상 고잔고), 정준혁(인천고)

숨겨진 인천의 상징! 인천도호부청사

역대 부사의 이름을 새긴 비석

과거 미추홀부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외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 이러한 인천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과연 무엇일까?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과 같이 인천에도 상징물이 있다. 어느 이는 문학경기장이라고도, 차이나타운이라고도 하겠지만 가장 적당한 예는 조선왕조 때부터 인천과 역사를 함께 해온 인천도호부청사일 것이다.

인천도호부청사는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조선시대 지방 관청 건물이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서 현재 문학초등학교 내부에 객사와 동헌 일부만 보존되어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잔존 건물이 문학초등학교 내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기도 발길 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반면 인천도호부청사를 재연해 놓은 모조건물은 남구 관교동 146-1번지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음 하는 인천도호부청사가 바로 이 재연건물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원래 건물의 위치적 맥락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데서 재연건물의 건립이 추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제의 잔재와도 연결된다. 일제는 궁궐이나, 관청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했다. 관청 안에 학교를 짓기 시작한 일이 대표적이다. 인천도호부청사 역시 일제의 훼손을 피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학교 안에 있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런 시대의 아픔이 도호부청사로의 발길을 뜸하게 만든 요소가 돼버린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도호부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로 상급기관인 목과 하급기관인 군, 현 사이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도 아래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두고 지방행정업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런 도호부를 설치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도호부 안에 객사 같은 경우는 임금의 위패를 모시는 역할을 했는데 가운데 채에 전패를 모시고 부사가 정기적으로 예를 올리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역할을 했다.

인천도호부청사의 건축 연대 자체는 확실치 않으나 조선 초기 학자이자 명신인 강희맹이 쓴 「인천부승호기」에 1424년 이미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도호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객사 지붕에서 발견된 명문에 의해 1677년(숙종 3)에 중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부읍지」에 의하면 객사 20칸, 동헌 10칸과 내동헌·삼문 외에 공수·삼문·사령청·향청·군 관청·훈무당·작청·옥사·사창·좌기청·어용청·수미고·군기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도호부청사는 과거 조상들이 살아온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조선왕조 동안 우리 인천의 입지를 잘 보고 느낄 수 있는 중요 유형문화재로서 의미가 있다. 얼마 전에도 정월대보름날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민속축제를 열어, 전통문화체험의 길을 열었다. 과거에만 얽매여서 보존 자체만을 연구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다.

인천도호부청사는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인천에서 잘 알려지거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문학경기장이나 차이나타운,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 인천을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도호부청사는 낯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외국인들에 초점을 맞춰 전형적인 인천의 표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도호부청사의 객사

박물관 소식 | 전시 | 행사 | 교육 |

상설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주 제 | 국악, 클래식, 팝페라, 재즈,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
일 시 | 2013년 3~12월 둘째 · 넷째 주 일요일 오후 4~5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일반시민 20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박博장場대大소小, 토요일!
주 제 | 2명의 가족이 참여하는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학습
일 시 | 2013년 3~6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세미나실, 3층 해념이방
대 상 | 회당 초등학생 동반가족 30팀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주 제 | 아름다운 우리 집 만들러,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일 시 | 2013년 1~12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장 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념이방
대 상 | 회당 가족 15팀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어린이체험 가자! 박물관으로
주 제 | 박물관 전시 및 초등학교 교과 연계 체험학습
일 시 | 2013년 3~6월, 화~금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장 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념이방
대 상 | 인천시내 초등학교 한 학급
신 청 | 담당자 사전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어린이체험 상설체험교실
주 제 | 도자기, 발굴, 민속놀이, 탁본, 민화, 청동기 등 8가지 상시체험
일 시 | 2013년 1~12월, 화~일요일 1일 3~6회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상설체험교실
대 상 | 회당 초등학생 10명
신 청 | 당일 안내데스크 접수

작은전시실 뮤지엄 콜라주
주 제 | 2012년 박博장場대大소小, 토요일! 사후활동 콜라주 유물액자 작품 전시
기 간 | 2013년 1월 8일~6월 30일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작은전시실

청소년진로 뮤지엄+ 드림캐쳐
주 제 | 전시기획 등 박물관의 다양한 업무를 체험하고 진로계획 세우기
일 시 | 2013년 4~6월,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장 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념이방
대 상 | 인천시내 중학교 2학년 한 학급, 동아리
신 청 | 담당자 사전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성인교육 박물관 시민강좌
주 제 | 달콤 쌉싸름한 역사
일 시 | 2013년 1~12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일반시민 150명
신 청 | 당일 선착순 입장

성인교육 제15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주 제 | 화교 디아스포라
일 시 | 2013년 5~6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성인 14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성인교육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상반기과정
주 제 | 문학 속의 인천, 인천의 문학
일 시 | 2013년 3~6월, 격주 화요일 오후 2~4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성인 14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성인답사 타박타박, 인천
주 제 | 원인천의 중심, 배꼽산을 찾아서
일 시 | 2013년 4월 14일(일요일) 오후 2~6시
장 소 | 문학산 일대
대 상 | 성인 2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분관소식

송암미술관

제1기 송암예술아카데미
주 제 | 흐름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일 시 | 2013년 3~4월,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장 소 | 송암미술관 별관 대강당
대 상 | 일반시민 4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현장 접수
문 의 | 032-440-6786

찾아가는 미술관
주 제 | 전통문화를 접하기 힘든 초등학생에게 직접 찾아가는 전통체험학습
기 간 | 2013년 3~7월, 격주 운영
장 소 | 신청기관에 마련된 교육실
대 상 | 인천시내 초등학생
신 청 | 담당자 사전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문 의 | 032-440-6785

지조와 절개의 상징, 사군자전 –詩書畵 三絕의 세계
주 제 | 조선후기에서 근대의 이행기와 일제시대에 걸쳐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사군자를 통해 살피는 전시회
기 간 | 2013년 4월 9일~9월 6일
장 소 |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문 의 | 032-440-6783

검단선사박물관

쿠키 속 달콤한 유물 이야기
주 제 | 쿠키클레이를 이용한 선사유물 쿠키 만들기
일 시 | 2013년 3~6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장 소 | 검단선사박물관 하늘정원, 아동도서실
대 상 | 6세~초등학생 동반가족 5팀 이내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비 용 | 재료비 4,000원
문 의 | 032-440-6790, 6796~7

학익 고인돌(鶴翼 支石墓)

높이 94cm, 개석 길이 260cm
너비 170cm, 두께 60cm

소장유물 유물관리과장 이희인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무덤의 한 형태로 지상에 큰 덮개돌이 드러나 있고 그 밑에 고임돌[支石], 무덤방[墓室]이 위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인돌이라는 명칭은 덮개돌 아래에 돌을 괴는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석묘(支石墓)라고도 한다. 대부분 무덤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부는 집단의 의식을 행하는 제단이나 기념물로 사용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돌은 유럽·인도·동남아시아·일본 규슈·중국 동북지역 등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4만여 기가 확인되고 있다. 강화를 포함한 인천에도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학익 고인돌은 본래 인천 남구 학익동의 (구)인천구치소 부근에 있었는데 자유공원으로 이전된 후 1990년 인천시립박물관에 이전·복원되었다. 이 고인돌은 높이 30cm 내외의 고임돌 위에 부정형한 타원형의 덮개돌을 덮은 탁자식 구조를 띠고 있다. 고임돌의 한쪽은 2개의 석재로 이루어졌고 전면과 후면의 막음돌은 없다.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간돌화살촉과 돌칼 등이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어 있는 학익 고인돌은 지금은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청동기시대 인천 내륙지역에 고인돌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의 고인돌은 강화도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서구 대곡동과 문학산 일대에 강화도와 비교할 만한 고인돌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문학산 일대에는 학익동에 7~8기, 주안동에 3기, 문학동에 1기 등 12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로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 학익 고인돌을 포함해 3기만 남아 있다.

* 「박물관풍경」은 2013년 봄호(Vol.17)부터 판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60번길 26
T. 032 440 6750 F. 032 440 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편집 전시교육과 안성희 | 자원봉사자 구자인혜 김명숙 정효숙
표지사진·제호 조오다 이태용 **디자인·인쇄** DNP KOREA